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음 6월 2일)

제18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혁신도시 지자체가 연대·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정기총회 참석자들과 함께 맞손을 잡고 있는 모습.

김승수 전주시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이어

정주여건 개선 국·도비 지원 건의

전국혁신도시협 정기총회에서... 관련 지자체들과 연대·공동건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도해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번에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정치권에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가 연대·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혁신도시 내실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유치 등의 내용을 담아내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시장은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가 그간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비 지원이 없이 지자체의 힘으로만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김 시장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이 결정됐던 지난 2005년 6월 이후 신설된 수도권 소재 61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

들과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의 일자리와 지방세수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혁신도시 내 부지와 건물 활용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이번 공동건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

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의 공동건의사항을 중앙부처와 각 정당 등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가 조성한 혁신도시에 국가와 광역시·도의 의무는 빠지고 모든 부담을 시·군에만 뉘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 주민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도 함께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법무부 '검사 대방출' 임박? 4면 - 선미초 철거 반대 집회

송 지사,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막판 득표 집중

아르메니아에 지지 요청

송 지사 "양국 지자체간 실질적 교류 추진되길"
TUMO기술센터서 IT콘텐츠 개발 교류협약 체결도

전북도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가운데 개최지 결정 한달여를 앞두고 아르메니아 등 유라시아 관세 분석을 통해 막판 득표 집중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사진 3면)
지난 19일 출국해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해외 자매우호 지역 확대를 위해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고 있는 송지진 도지사 등 전북방문단은 아르메니아 등 유라시아 9개국의 표심 분석과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라시아 9개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작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송 지사는 20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총리 카렌 카라페트얀(Karen Karapetyan)과 바그렛 전 유라시아 스카우트 사무처장을 면담하고 인근 국가별 표심 논의와 그 대안을 협의하고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세계 스카우트총회에서 반드시 유치가 성공할 필수 카드를 마련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송 지사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가 우리나라 남북한과 같은 관계로 만약 개최지 결정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이 생길 경우 위임장을 다른 나라에 넘겨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지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표심을 확고히 붙잡기 위해 공을 들였다.
송 지사는 아르메니아 총리에게 잼버리 유치 지지 요청과 함께 "전북도는 '한국 속의 한국', '한문화의 정수'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한문화 중심지로 농업·탄소·관광 등 지역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경제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고 "코카서스 지역 내 숨겨진 보물인 아르메니아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북-아르메니아 지자체 간 교류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송 지사 등 전북 방문단은 이날 TUMO기술센터에서 아르메니아 레본 미르레치안(Levon Mirzichyan) 교육과학부 장관과도 만나 지난 4월 콘텐츠산업진흥원 방문을 통해 맺어진 교류 희망의사를 재확인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미디어, 웹 등 IT콘텐츠 개발과 기술협력교류에 대한 중장기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진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장 임용 예정자 2명 확정

9월 1일자 김택수 성당초 교장·이항근 군산남고 교장
전북도교육청이 김택수 성당초 교장 등 2명을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김택수 성당초 교장, 이항근 군산남고등학교 교장을 교육장 임용예정자로 확정짓는 교육장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김택수 성당초 교장은 올해 만 58세로 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주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전주북초 교장을 지냈다. 이항근 군산남고 교장은 올해 만 59세로 공주대학교를 졸업하고 회현중 교장을 지냈다. /정해은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